

# 고흥군, 명실상부 대한민국 귀농귀촌 1번지 '우뚛'

##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귀농귀촌도시 부문 '6년 연속 수상'... "인구 10만 기반 구축에 최선"

고흥군이 귀농귀촌 분야에서 또다시 우수한 성과를 증명하며 전국적 명성을 이어 나가고 있다. 군에 따르면, 최근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최한 '2024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귀농귀촌도시 부문에서 2019년부터 6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으며, 이는 고흥군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은 전국 지자체와 기업의 브랜드를 대상으로 경영 실적 및 브랜드 가치, 고객만족도, 마케팅-커뮤니케이션 등을 평가해 브랜드를 선정했다.

고흥군은 귀농어 귀촌 유치실적, 귀농귀촌 행복학교 운영, 도시로 찾아가는 귀향귀촌 설명회 개최, 전문요원이 상주하는 귀농어·귀촌인 사후관리 모니터링 추진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정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매년 귀농어·귀촌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고흥군은 ▲도시민의 5도 2촌 생활을 위한 권역별 택지 및 임대주택 조성사업(2026년까지 500호)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청년 '리턴 고흥' 프로젝트 ▲공공형+기업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귀농귀촌 1번지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고흥 인구 10만의 기반 구축을 위해 군민과 함께 힘찬 여정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고흥=기동취재본부

# 여수시, 설 연휴기간 '영락공원' 이용 안내

추모의 집 오전 7시~오후 6까지 연장운영

여수시가 성묘객이 크게 증가하는 설 명절 연휴 기간 '영락공원' 운영 일정과 방법 등을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추모의 집 설 명절 운영시간은 연휴가 시작되는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기존 보다 두 시간 앞당겨 오전 7시~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한편,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발생증가 등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추모의 집 2개소 '제레단'은 2월 9일부터 4일간 운영이 중단된다.

아울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성묘가 가능한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지원한다.

여수시는 매일 시설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마스크착용 권고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며, ▲미리 성묘하기 ▲머무는 시간 줄이기 ▲조화사용 자제 등 영락공원 이용수칙을 문자로 발송하고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 교통정체가 극심한 시간을 피해 추모의 집을 방문 할 수 있도록 연장운영을 시행하니 교통 분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며 "조화 사용으로 미세 플라스틱 등 환경오염에 따라 플라스틱 조화사용 근절에도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수=기동취재본부

# 순천시, 식량산업종합계획 농식품부 최종승인

## 고품질 쌀 유통화사업으로 국비 25억원 확보...순천쌀 경쟁력 강화

순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역단위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최종 승인 받았다 고 밝혔다.

농림부는 2018년부터 지자체 스스로 미국과 발 식량작물의 균형 있는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토록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및 선정 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순천시는 지역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을 지난해 9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제출

하고 현장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올해 1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고품질 쌀 유통화,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사업 등 국비 사업에 대해 신청 자격을 부여받거나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시는 금년에 고품질 쌀 유통화사업(DSC시설지원, RPC 시설현대화)으로 국비 25억을 확보

보하여 안정적인 공공비축미 매입 및 수확 후 고품질 쌀 유통을 통해 순천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을 통해 5개년간 8개소에 국비 87억을 신청 할 계획이다.

양영만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에 승인된 식량산업종합계획을 토대로 식량산업의 전반적인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 시 지역에 맞는 발작물 전략 품목 육성하여 안정적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조직화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광양시-민관산학,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지정 '맞손' 상호협력 공동선언문 발표

광양시는 25일 광양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와 함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광양 교육발전과 지역교육력 제고를 위한 협력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 ▲지역 균형발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참여 기관의 역할과 지원 활동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사업은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의 교육혁신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오는 2월 9일까지 1차 공모를 거쳐 3월에 시범지역이 지정된다.

광양시는 교육 발전을 위해 추진해오고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을 기반으로 교육부 교육개혁 과제를 중점 연계해 특색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방기태 교육보육센터소장은 "광양시는 민관산학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인재가 정주할 수 있는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 보성군, 농업용 굴착기·지게차·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생 모집

## 농업기계 전문자격 취득 교육생 이달 30일 현장 접수



보성군은 오는 30일까지 지역 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3톤 미만 건설 기계 조종사 및 농업용 드론 조종사 1종 취득 교육과정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정 인원은 3톤 미만 소형 건설기계(굴착

기 또는 지게차) 조종사 60명,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사 1종(드론) 10명이며, 1월 30일 오전 9시부터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선착순으로 현장 신청받는다.

모집 대상은 보성군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으로 1종 보통 운전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3톤 미만 소형 건설 기계(굴착기, 지게차)의 경우 1월 30일 기준 18세(2006. 1. 30. 이전 출생자) 이상 신청이 가능하다. 드론은 18세 이상부터 60세 이하까지(1964. 1. 30. 이후 ~

2006. 1. 30. 이전 출생자)의 나이 제한이 있다.

보성군은 소형 건설 기계의 안전한 사용법을 익혀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비의 50%를 지원한다. 건설 기계는 1기종당 교육비의 50%인 최대 17만 5천 원, 드론은 교육비의 50%인 최대 1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은 굴착기, 지게차, 드론 중 1인 1개 과정만 신청 가능하며, 굴착기, 지게차 교육은 이론 6시간과 실습 6시간 총 12시간 이수 후 별도의 시험 없이 면허취득이 가능하다.

신청 제출 서류는 교육신청서 1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사진(3\*4cm) 1매가 있으며, 30일 현장 접수 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운영팀(☎061-850-5718)에 문의하면 된다.

보성=김덕순 기자

# 순천시, 설맞이 '고향사랑 기부제' 1+1+1 이벤트 실시

## 오늘부터 2월 7일까지 추가 혜택 제공

순천시는 우리 고유의 대명절 설을 맞아 29일부터 오는 2월 7일까지 '순천 고향사랑기부제 1+1+1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중 고향사랑e음 사이트(<https://ilovegohyang.go.kr>) 또는 NH농협을 방문하여 순천시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 주문까지 완료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이벤트에 당첨된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전액 세액공제 및 초과분 16.5%공제), 답례품 선택(기부액의 30%)과 더불어 순천사랑상품권 3만원(추첨)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기부일 익일 개별 공지되며 총 50명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신경란 예산실장은 "우리 고유의 대명절인 설을 맞아 순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순천에 기부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리고자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법인 불가)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고(개인별 최대 500만원 가능)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지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사용금지 품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

**전라남도**